

2015 수능 시험 직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1. 수능 D-1 체크리스트

- 일단은 직접 시험장에 가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혹은 부모님의 자가용을 이용할지 정하시고 가시는 길을 실수 없이 익히시길 바랍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시험을 볼 시험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험장 안은 출입이 금지되오니,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크해야 할 부분은 열에 민감한 학생이라면 히터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화장실의 위치나, 쉬는 시간에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수기의 위치나 시험당시 학생 입장에서 필요한 기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집에 오셨으면 마지막 마무리 공부를 하시는데, 이에 대한 것은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시험 전날 점심과 저녁식사는 '가능하다면' 다음날 속에 부담이 가지 않을 식단을 드세요. 괜히 영양 보충한다면서 평소에 먹지 않았던 자극적인 맛있는 음식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속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식단을 추천합니다.

-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전날 응원 문자/카톡에 의해 사적인 감정에 빠지거나 답장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 수 있으니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전원을 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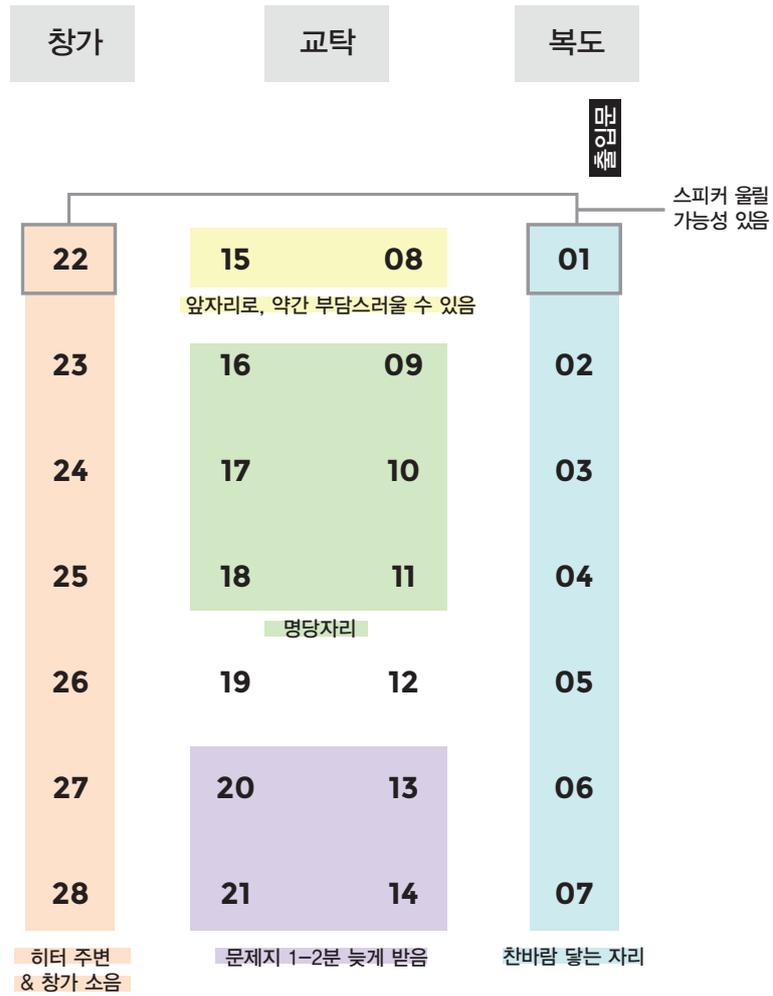
- 공부가 마무리되었다면 시험장 준비물을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수험표는 물론(가채점표를 붙인 상태), 신분증과 지우개, 필기도구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다음날 입을 옷에 대해서도 생각해두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옷을 입으려다가 괜한 멘탈붕괴에 빠지지 마시구요. 개인적으로는 교복을 추천합니다만, 재수생이라면 평소에 입었던 트레이닝복도 추천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평소에 자주 입었던 옷을 입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시험장 내부에서는 히터등으로 인해 더울 수 있으니 얇은 티셔츠에 가디건, 후드 등 옷을 겹쳐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 평소에,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정도 유지했던 패턴대로 침대에 누우세요. 괜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람 몸이란게 물론 정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평소에 잤던 시간에 눕는다면 무조건 잠들 수 있습니다. 괜히 잠이 안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더 잠이 안올거예요 걱정하지마세요.

<참고자료>

수험장 자리 배치표



* 이 자리 배치도는 인터넷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제작했으며 스피커울림이나, 히터, 찬바람의 변수는 시험장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1. 수험표, 가채점표 (가채점표는 수험표 뒤에 붙이세요.)

- 가채점표는 제 글에 첨부합니다.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를 꼭 지참하세요.

-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에 도착하여 입실시간 이전 감독관에게 문의하세요.

3. 필기도구, 펜과 샤프, 샤프심,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시계

- 개인적으로 샤프를 사용하시면 샤프의 고장인 경우를 대비해 여분을 지참하세요.

- 시계는 시각표시와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지참 불가입니다.

- 공식적으로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지참 불가입니다.

4. 그 외 개인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경닦이, 안경, 렌즈, 화장지, 물티슈, 귀마개 등

- 렌즈는 비추합니다,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 귀마개는 시험 감독관에게 미리 문의하시는게 편합니다.

5. 도시락, 물

- 가능하면 도시락은 보온을 추천하며 식단은 위에서 제시한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으로 구성하세요.

6. 주의사항 (네이버에서 참조)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샤프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 같으나

사실상 사용해주시는 감독관이 많으니 분위기에 따라 사용하세요.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PMP, 휴대폰, MP3등 전자기기는 개인적으로 지참 자체를 안하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2. 수능 당일 시험 이전 체크리스트

- 시험 당일, 이전 날 평소와 동일한 시간에 취침했다면 동일한 시간에 기상하세요.
- 아침을 먹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며 이 때도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죽을 조금이나마 먹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준비가 완료된 후, 이미 정했던 방법으로 시험장에 좀 빠른 시간에 도착하세요. 자가용을 사용하여 이동하시는 분들은 시험 날은 자가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금이나마 빠른 시간에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시험장에 도착하셨다면 자신의 자리와 컨디션을 정리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세요.
- 만약 문의 사항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괜히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변에 있는 감독관에게 문의하세요.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기위해 계시는 분들입니다.

3. 수능 시험 시 체크리스트

-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밀려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아시죠? 하지만 실수는 자신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는 것이기에 실수입니다. OMR카드를 체크하기전에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하세요. 물론, 예비마킹등의 흔적도 남기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정신상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더 생각하면 알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는 태도를 가지지 마시고, 일단 넘기고 나머지 문제를 푼 뒤에 다시 돌아오는 전략적인 방법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4. 마지막 한 마디

어느 사회나 성인식이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는 달려오는 동물의 뿔을 잡고 공중제비를 도는 것을 성공해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는 우리들은 어쩌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공감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혀 관련 없는 것 마냥 신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2014년 성인식은 존재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현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성인식은 수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異見)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수능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청소년기 내내 공부, 즉 수능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하고 이를 검증받는 날이 곧 수능 날이니 어쩌면 수능을 현대시대의 성인식의 종류 중 한가지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은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앞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앞길을 위해 준비하는 성인들보다 더 고민이 많은 존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고민들을 천천히 풀어갈 수 있는 첫 디딤돌이 될 수 있죠. 어쩌면 성인이 되는 첫걸음은 수능의 끝에서 시작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2년의 장정이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좋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 한정된 자원(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니 소수만이 오직 이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21, 22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확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과를 떠나 각자의 삶에 깊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적인 가치가 이미 되었습니다.”

절대 결과를 걱정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이는 결과를 떠나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하나의 경험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과를 떠나 여러분들은 모두 통과의례를 성공적으로 지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을 몇 년 전 먼저 치룬 선배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친구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수능을 응원합니다. 아니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